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현황 조사분석 연구*

An Analyzing of the Current CHI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노 영 희(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 론 | 3.1 국외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제공 현황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국내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제공 현황 |
| 1.2 연구방법 및 내용 | 4. 논의 및 제언 |
| 2. 선행연구 | 5. 결 론 |
| 3. CHI 관련서비스 제공현황 | |

초 록

소비자건강정보(CHI)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자건강정보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정보획득방법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CHI 획득경로 중의 하나가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에 대한 참고서비스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스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고 관련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분석 및 해외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CHI 서비스 제공비율은 17.25%로 나타나 CHI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HI 제공방법의 다양성을 조사했을 때,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 이용자대상 교육,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등 세 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13개의 도서관(1.74%)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CHI 담당사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도서관 사서가 CHI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나 ILL 서비스, 의료기관을 포함한 협력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된 CHI 서비스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increased interest in consumer health information(CHI) has brought about a rapid increase in CHI resources. There are diverse means for obtaining such information, and one CHI acquisition route is the public library. In the U.S. public libraries, the demand for CHI reference services is increasing, and a variety of projects to promote these services are in progress. On the other hand, Korean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 is at a very basic level, and thus a very small amount of such research could be found. This study drew suggestions from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studies in the U.S. and Canada, and analyzed public library CHI services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Only 17.25%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provided CHI service, and it evidences very low needs and awareness for CHI services in Korea. 2) Only three kinds of services including CHI-related websites, users training, and promotional and marketing were provided, and only 13(1.74%) of libraries surveyed offered more than two kinds of services. 3) There were no CHI librarians, nor did any librarians receive CHI-related education. 4) ILL services, outreach services, and cooperation with CHI- and medical-related institutions for CHI services were not fou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research on delivery strategies for CHI servic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키워드: 소비자건강정보, 공공도서관, CHI서비스현황

CHI, Consumer Health Information, Current CHI Services, Public Library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3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2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415-437, 2011. [DOI:10.4275/KSLIS.2011.45.2.4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반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관련 사이트가 증가하고, 건강관련 TV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련 도서 및 저널 수 증가, 건강관련 메시지 및 메일 증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정보 이용환경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학술자료를 통해서 건강정보에 접근하거나 병원 방문, 병원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일반병원, 대학병원, 상업적인 의료기관,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블로그, Q&A 사이트 등 그 출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는 2004년에 4,900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5,100건으로 1년 만에 약 200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송태민 2006).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건강정보획득 방법 및 경로조사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조경원 2006),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인터넷 316명(66.4%), 방송매체(TV, 라디오) 194명(40.8%)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7)의 2007년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13%가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

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CHI, 이하 CHI로 쓴다)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Ipsos Canadian Inter@ctiveReid에서는 조사대상 캐나다 이용자의 85%가 인터넷을 통해서 CHI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제공서비스도 증가해 왔다. 1990년대에 캐나다 온타리오공공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서비스 현황조사에서 CHI와 관련된 참고질문의 비율이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Marshall, Sowards, & Dilworth 1991), 미국 공공도서관의 경우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Wood et. al. 2000). 국내에서 수행된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CHI 요구 빈도수는 80%가 10건 미만이었고 전체 정보요구 중 CHI요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0% 미만의 도서관이 92%(23개관)로 나타나(홍기선 2005) 국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CHI요구나 공공도서관의 CHI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에 대한 관심 증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CHI의 제공 증가,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에 대한 이용자요구 증가 등이 현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이 CHI를 찾는 최초 접근점이 될 수 있다(Murray 2008). 이용자들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에 접근하며, 비용부담 없이 CHI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제공 현황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선행연구결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된 공공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연구에서 설

문 응답자는 25개 기관이고(홍기선 2005) 이중 CHI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 도서관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CHI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24%(6개 도서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해외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및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CHI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건강, 보건, 의료 등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일반인, 보건의료전문가, 학생, 환자 및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를 지칭한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정보, 질병정보, 보건의료학술정보, 건강관련법령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경원 2006). Derring과 Harris(1996)는 CHI는 건강교육, 자기관리정보, 고품질치료정보, 대체의료는 물론이고, 의료지침 및 의사결정지원정보를 포함하는 환자정보를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앞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건강정보제공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제공현황 분석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조사·분석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일찍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

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자료가 발표되어 있다.

둘째, 2010년 도서관연감에 등재된 국내 공공도서관 748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CHI 관련 서비스 제공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다. 7명의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대상 항목은 아홉 가지 항목이다. 조사대상 내용은 CHI에 대한 국내외 문헌분석연구를 통해서 밝혀진(노영희, 오상희 2011) 공공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CHI서비스와 Zeisel(2005)이 제시한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 성공포인트, 그리고 3.1에서 조사된 사례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Zeisel(2005)은 'Community Health Connections' 보고서를 통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CHI에 대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들 및 지역 단체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둘째,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이론 및 실무의 교류가 있게 한다.

셋째, 도서관 내에 전문적인 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전자정보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취하도록 한다.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서관은 웹사이트상에 충분한 건강정보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 및 웰빙에 관심이 있는 지역기관이나 지역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이 어려서부터 건강 및 웰빙습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흥미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사서 및 도서관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의 CHI제공 역량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 지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현황
- 이용자 대상 또는 직원대상 CHI 관련 교육 제공 여부
- CHI 전담직원 유무
- CHI 관련 유료 DB 또는 무료 DB 제공 여부
-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종류 및 형식
- CHI 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 CHI 관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 CHI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여부

2. 선행연구

CHI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독일 및 네덜란드,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Schell과 Kitendaugh(1999)은 공공도서관 파일럿프로젝트(Public Library Pilot Project)를 수행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국립의학도서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 NN/LM)간의 연결을 수립하고 강화하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이 일반인의 CHI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NLM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후 Wood 등(Wood et al. 2000)은 이 프로젝트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평가결과 공공도서관이 CHI를 제공할 수 있도록 NLM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NLM이 공공도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Derring과 Harris(1996)는 미국건강보건의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해 제공되는 CHI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관심분야와 제공되는 정보원의 패턴, CHI 정보를 찾을 때 소비자가 직면하는 문제 등을 규명하면서 CHI 제공자 및 중개자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Pifalo 등(1997)은 공공도서관에서 CHI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공공도서관에서 CHI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의 CHI정보는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보건의료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CHI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CHI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고, 건강문제에 대한 근심이 줄어들었으며, 그들의 생활양식이 변화되었다고 했다.

Gillaspy(2005)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CHI의 이용환경,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환

경에 크게 영향을 준 요인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접근율의 증가,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CHI의 질 향상, 잘못된 생활습관이 심각한 질병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확산, 소비자건강운동의 성숙, CHI관련 인쇄자료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지식 강조 등이 그것이다. Gillaspy(2000)는 위의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점점 더 많은 이용자가 CHI를 도서관에서 찾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사서는 의학정보에 전문적이지 않고, 따라서 CHI 서비스를 수립하는 것은 중압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그는 CHI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Pernotto 등(2003)은 EHI(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관련 연구에서, 시골 지역 주민의 건강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UHSC/S(Health Sciences Library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alth Sciences Center/Shreveport)가 개발한 'Health e-Links'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유용하고 신뢰성있는 참고정보원리스트 제공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정보원은 환자들의 의학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NLM 탐색절차에 대한 훈련이 사서들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탐색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2년간의 이용통계를 분석하였을 때, 이 서비스를 오픈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월 평균 이용률은 125건이었으나 그 통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년 후에는 월평균 이용건 수가 3,000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Picerno(2005)는 이용자들의 건강정보탐색 습관과 도서관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원을 분석함으로써, 건강정보원 탐색자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정보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공도서관이 건강정보탐색자들이 탐색을 수행하는 정보원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urray(2008)는 캐나다 및 미국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이래 북미 공공도서관들은 CHI와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서비스 지원부족으로 활발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형태는 CHI 관련 웹사이트 소개 및 전자정보 제공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Kloda(2008)는 캐나다에서의 건강정보리터러시 교육현황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06년에 맥길대학은 CHI 관련 교육이나 활동들이 의과대 학부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전화를 통해 조사했으며, 조사대학 17개 대학 중 14개의 대학에서 CHI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RVHCC(River Valley Healthy Communities Coalition)의 교육과정이다. 이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2008년에 옥스포드 카운티 지역주민의 건강정보접근성, 건강정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정보리터러시아우치(Health Information Literacy Outreac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건강정보리터러시교육과정

을 개발하여 지역학교의 선생님 및 사서에게 적용하였다.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18%의 학생이 웹기반건강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 후에 48%로 늘어났다. 사후 설문조사에서 65%의 학생이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배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의 선생과 사서가 건강정보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Kurtz-Rossi & Duguay 2010).

델러웨이(Delaware) 공공도서관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CHI 탐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LaValley 2009). 소비자건강사서는 어린이사서와 협력해서 공공도서관내 겨울독서프로그램과 일관성이 있는 활동기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했다. 'Wellness Wednesdays for Kids' 프로그램은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6주간의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Tarver(2010)는 유전학 분야의 증가된 정보는 보건의료 소비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새로운 리터러시 측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enomics literacy(유전자정보활용 능력)'는 보건 및 의학적인 맥락에서 유전자 정보를 찾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Tarver는 소비자나 의료 공급자들의 낮은 유전자정보활용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유전자정보활

용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비자건강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CHI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보건 의학분야에서 진행되었고, 공공도서관에서의 의학 또는 소비자건강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음이 문헌조사과정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먼저 이란주(2001a)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질문에 의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의학정보사이트의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의학정보웹사이트 7개를 인터페이스, 정보원 구성,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그(2001b)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정보봉사의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의학정보사이트의 구축과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지식창출시스템, 기술지원시스템, 교육지원시스템, 커뮤니티시스템, 지식공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식관리시스템의 제안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선(2005)은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이에 대한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실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수집, MEDLIS, CHIN, CHIPS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

터베이스 제작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국내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연구로서 이 연구에서는 CHI와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공공도서관 사서(소비자건강사서)의 역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CHI 서비스 내용 등을 문헌분석방법론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노영희, 오상희 2011). 위의 연구에서 도출된 8개의 CHI 서비스는 국내에서의 CHI 현황을 조사하는 본 연구의 기초연구가 되었다.

3. CHI 관련서비스 제공현황

3.1 국외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제공 현황

CHI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요구 영역 중의 하나이다(Zeisel 2005). 이에 미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CHI관련 새로운 서비스, 장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즉 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하거나, 건강관련장서를 개발하거나 인터넷 참고정보원 웹사이트를 조직하거나, 지역 의료기관 및 학교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거나, 건강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건강관련 장서를 평가하는 문제까지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CH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1) NOAH

NOAH(New York Online Access to Health

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건강정보를 전문(full-text)으로 제공하며, 정확하고, 적시에, 적합한, 그리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평가되었다(Gallagher, Markovich, & Neri 2000). 뉴욕주립대학도서관서비스부(City University of New York Office of Library Services), 뉴욕의과대학도서관(New York Academy of Medicine Library), 뉴욕시도서관위원회(the Metropolitan New York Library Council),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등 4개 기관의 공동프로젝트인 NOAH는 뉴욕 시민에게 CHI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정보원에 접근하게 한다. NOAH는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대학, 공공, 의학기관)간의 협력이 성공한 사례로 뽑히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이용자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건강관련기관이다.

2) 공공도서관내 그릴로건강정보센터

그릴로건강정보센터(Virgil Grillo Health Information Center in Public Library)는 1998년에 볼더공공도서관(Boulder Public Library) 내에 설치되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환경을 추구했던 고 그릴로박사(Virgil Grillo)를 기리기 위해 이름 지어졌다.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두 명의 감독자와 함께 건강정보에 대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자료를 포함하며, 이 도서관의 모든 장서가 이용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릴로(Grillo Center)는 공공도서관 강당에

서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전문가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항상 지역커뮤니티케이블텔레비전에 의해 비디오테이프를 녹화되며, 지역커뮤니티채널에서 정기적으로 방송된다. 또한 이 테이프는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서로 등록되기도 한다.

이 센터는 또한 볼더지역의 소외계층 이용자들이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커뮤니티기관과의 협력을 점점 늘리고 있다. 예를 들어 2개 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환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를 노트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CHIN(CHI네트워크)

CHIN(Consumer Health Information Network)은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 의해 18개월간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NHFPL(New Heavern Free Public Library), 예일대학의학도서관(Yale University Medical Library), 예일의과대학(Yale School of Medicine)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NHFPL 사서에게 MedlinePlus와 PubMed 교육을 제공하며, 소비자건강관련 참고질의에 답변하는데 있어 사서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건강관련 서비스가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분산, 확장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다른 의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본관으로부터의 아웃리치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학도서관의 CHI 웹사이트는 CHIN 사이트의 '웹정보자원'에 링크되어 있다. 슈퍼마켓의 도서관 키오스크에서의 CHIN

웹사이트 링크는 다른 어떤 링크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학도서관에는 인쇄자료 담당사서, 전자장서위원회, 웹사이트위원회가 있으며, MedlinePlus와 PubMed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한 홍보, 마케팅 플랜을 포함하여 관련정보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참고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도우며, 그룹지도 및 기술지원을 하기도 한다. 예일 의과대학은 강의할 교수와 의대생을 소개하며, 다양한 기관지원을 한다.

4) 알라바마건강정보망

(Health InfoNet of Alabama)

알라바마건강정보망은 버밍햄에 있는 제퍼슨카운티공공도서관(Jefferson County Public Libraries), 알라바마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 리스터힐보건학도서관(Lister Hill Library of the Health Sciences)에 의해 자금지원이 되어 '제퍼슨카운티건강정보망(Health InfoNet of Jefferson County)'으로 1999년에 시작된 주립의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협력적 CHI서비스이다. 2002년에 그 서비스를 셸비카운티(Shelby County)로 확장한 후 알라바마건강정보망으로 개명하였다. 알라바마건강정보망 웹사이트는 NN/LM(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의 기금으로 알라바마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디자인 하였으며,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2-2003년에는 NN/LM의 기금을 받아 버밍햄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 건강정보망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2004년에 주 전체의 협력서비스가 될 목적

으로 'Health InfoNet'은 국립의학도서관의 'Go Local'에 참여하였다. 'Go Local'은 Medline-Plus의 CHI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건강관련 주제별로 건강정보원 및 건강정보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서비스 네트워크는 주 전체로 확장되었으며, 알라바마 공공도서관이 최초의 파트너로 섭외되었다.

5) ASK ME: Improving Health Literacy and Outcomes through Partnership

1988-1989년에 '야곱및발레리아재단(Jacob and Valeria Langeloth Foundation)'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퀸즈공공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 내에 건강정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글렌즈폴(Glens Falls)에 있는 크랜들 공공도서관(Crandall Public Library)과 협력 관계를 수립하였다. 퀸즈공공도서관은 또한 보로우(Borough)의 두 공공도서관, 지역 및 국가의 건강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퀸즈건강정보망(Queens Health Network)'과도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였다. 퀸즈공공도서관은 질병 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의해 제공되는 화상회의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퀸즈공공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에 있는 사서에게 웹자원에 대한 화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퀸즈공공도서관의 최초의 건강관련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ASK ME'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여성의 무료 유방암 및 자궁암 진단의 기회를 늘리고자 함이다. 도서관 분관들은 관련 안내책자나 포스터를 받으며, 자원봉사 사서들은 'ASK ME' 버튼을 통해 다

양한 언어(138개 언어)의,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서들은 이용자가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조기 진단정보카드도 제공한다.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 이용자가 무료 또는 저비용의 건강보험 선택항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며, 건강정보를 '가족단위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대상 '유아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추가하였다.

6) CRD

CRD(Community Resource Database of Long Island, 롱아일랜드지역사회자원데이터베이스)는 미들카운티공공도서관(Middle Country Public Library)의 사서에 의해 고안되었고, 공공기관, 사립기관, 그리고 정부부서의 컨소시엄으로 1989년에 출발되었다. CRD는 롱아일랜드의 포괄적, 카운티간, 건강관련 온라인 디렉토리, 복리후생서비스, 그리고 교육기관이자 프로그램이다. 약 12,000건의 커뮤니티 정보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2.6만의 롱아일랜드 거주자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약물 남용 서비스, 지원단체, 비상식량지원, 핫라인(Hot-Line) 등과 같은 주제의 건강관련 필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은 나수 및 서퍽(Nassau and Suffolk), 롱아일랜드 유나이티드웨이(UnitedWay of Long Island), 그리고 미들카운티공공도서관재단(Middle Country Public Library and Foundation)이 공동으로 지원하며 광고비로도 충당되고 있다.

집에서 가족 구성원, 고용주와 고용인, 학생, 학교 및 병원의 직원, 커뮤니티 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용자가 CRD를 이용하고 있다. 유

나이티드웨이와의 협력으로 180개 이상의 유나이티드웨이 대리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롱아일랜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September 11th'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CRD는 도서관 취약계층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한지역사회를위한나수협력기관(Nassau Partnership for Healthy Communities)과도 협력관계를 맺었다.

7) CLIC-on-Health

CLIC-on-Health(Community & Library Information Collaboration on Health)는 공공도서관에 구축된 커뮤니티기반 CHI자원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히 인터넷 사용능력이 있는 중간계층의 거주자와 시내 및 도시지역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LSTA 자금지원, NN/NM 자금지원, 그리고 주상원의원(James Alesi)의 1년간의 특별기금으로 지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협력을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 두 도서관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77개의 공공도서관
- 로체스터(Rochester)의 두 개의 가장 큰 병원에 있는 의학도서관
- 로체스터시교육청도서관시스템(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Library System)
- 관절염재단(Arthritis Foundation)
- 고령화에대한문로카운티보건국(Monroe County Health Department and Monroe County Office for the Aging)
- 커뮤니티테크(CommuniTech), 이 기관은

무료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 로체스터지역도서관협의회(Rochester Regional Library Council), 이 기관은 사무용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CLIC-on-Health에는 네 개의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1) 지역 건강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건강웹사이트와 국가 사이트에 대한 웹사이트 링크, (2) 건강정보자원에 대한 훈련 및 인식, 각 단체의 요구에 대한 정리, (3) 단계적 방법을 통한 참고정보서비스, 즉 이용자는 먼저 공공도서관이나 의료기관에 가고, 그 곳에서 질문이 해결되지 못하면, 읍(town)에 있는 의학도서관에 참고서비스를 의뢰한다. (4) 지역 공공도서관과 의학도서관이 신뢰성있는 건강정보를 획득하는데 검증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웹사이트를 홍보한다.

CLIC-on-Health프로젝트는 설립 이래 클릭온헬스운영위원회(CLIC-on-Health Steering Committee)를 운영해 왔으며, 거의 100여명을 위한 CHI관련 공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의학도서관, 도시/도시근교/시골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여명의 공공도서관 사서, 30여명의 의료기관 사람, 70여명의 학교도서관 사서, 그리고 대도시 중심부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 노인회관의 50여명의 직원 및 고령자에게 건강정보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CLIC-on-Health를 홍보한다. 그들은 또한 인터넷기반 건강정보원에 접근이 어려운 몇몇 도시간(inter-city) 지역에 컴퓨터를 제공하고, 지역 개인방송국과 협력으로 의학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웹페이지

를 개발하였다.

8) Crandall/Langeloth Program

Crandall/Langeloth 프로그램은 질병이 회복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의 사서에게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뉴욕 전역에 걸쳐 CHI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참고사서 수준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참여도서관들이 CHI 관련 핵심 장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1998-1999년에 란젤라드재단(Langeloth Foundation)으로부터의 보조금은 시골지역에 위치한 크랜들공공도서관 내 란젤라드교육정보센터(Langeloth Convalesc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Center), 뉴욕시의 쿤즈공공도서관에 기부되었다. 초창기의 목적은 질병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01년에 이 재단은 교육과 서비스의 기초를 확립할 란젤라드센터(Langeloth Center)를 설치하는데 \$120,000의 기금을 기부했다.

란젤라드센터에서 전화, 이메일, 대면, 정보패킷 형태로 요청된 질의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처리된다. 그 센터는 도서, 연속간행물, 비디오,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소비자건강웹사이트를 포함하여 핵심 참고자료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란젤라드재단으로부터의 추가 기금은 크랜들공공도서관이 그 서비스를 사서를 포함하여 일반인에게 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선별된 뉴욕 도서관들 내에 란젤라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립의학도서관은 뉴욕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협력을 해주었다. 또한 '성공 규칙: 인터넷상의 CHI', '만

병통치약에서부터 폐니실린까지: 인터넷상의 CHI원 평가'와 같은, 사서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되기도 했다.

9)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국가건강교육포상프로그램평가기관(National Institutes of Health's Education Awards Program)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2000년 10월에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이용자들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최신의 신뢰할 만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의 목표는 (1) 공공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 소수집단이 그들의 지역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서관의 아웃리치서비스를 장려하며, (3) 이를 통해 소수집단(취약계층)이 CHI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툴킷은 7개의 언어로 작성된 건강관련 팸플릿을 포함하고, 도서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전문가 인터뷰와 같은 비디오 정보도 포함한다. 핵심 주제는 당뇨병, 고혈압, 천식, 전염성 질병, AIDS 등이다. 웹사이트에는 수없이 많은 건강정보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Healthy People 2010 Library Initiative'는 사서들이 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위에서 조사된 사례 외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웃리치, 다관중간 협력관계,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 분석된 CHI 관련 서비스 사례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사례 및 서비스 분석내용은 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 제공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웃리치서비스이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로서 취약계층에게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농촌지역에까지 확대하여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건강관련 특강을 녹화하여 지역방송에 방영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다양한 층의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고 보며, 'Health InfoNet of Alabama', 'Click-on Health' 등은 이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참고해야 할 사례로 보인다.

둘째, 공공도서관, 의료관련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CHI를 제공하는 사례로서, NOAH와 CHIN 등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료 및 지식, 인력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신뢰도, 정확성, 안전성 등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강정보관련 정보원의 구축 및 활용

이다. CHIN, CRD, Health InfoNet of Alabama를 포함하여 많은 도서관이 건강관련 정보원을 웹사이트 상에 구축하고 해당 정보원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4,000여 개가 넘는 건강관련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관련정보원에 대한 DB구축은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사서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건강정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DB로서 PubMed와 MedLinePlu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참고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릴로건강정보센터 사례 및 'ASK ME'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뽑힌다.

3.2 국내 공공도서관의 CHI 서비스제공 현황

본 연구에서는 1.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750여개의 도서관 중 몇 퍼센트의 도서관이 소비자건강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3.2.1 CHI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현황

국내 공공도서관의 CHI 관련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도서관연감'에 있는 748개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일단 CH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공도서관 CHI서비스 현황

서비스	도서관 수	비율(%)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	62	8.3
CHI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이용자 대상	73
	직원 대상	0
CHI 전담직원 유무	0	0
CHI 관련 DB 제공 여부	유료	0
	무료	0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1	0.1
CHI 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6	0.8
CHI 관련 ILL 서비스 제공	1	0.1
CHI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0	0
CHI 관련 홍보 및 마케팅	6	0.8

분석내용은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현황, 이용자 대상 또는 직원대상 CHI 관련 교육 제공 여부, CHI 전담직원 유무, CHI 관련 유료 DB 또는 무료 DB 제공 여부, CHI 관련 웹사이트 링크 제공 비율,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종류와 형식, CHI 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CHI 관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CHI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여부, CHI관련 홍보 및 마케팅 여부 등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조사결과,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CHI 전담사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중 이용자 대상 CHI 관련 교육은 있으나, 직원 대상 교육은 도서관내에는 물론이고 국립중앙도서관 사

서교육문화과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e-사서연수 2011).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광양평생교육관으로 조사되었으며, CHI 관련 서비스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명은 '지역 단체와 연계한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광양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이다(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201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전체 공공도서관 중 82% 이상이 CH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서 조사된 내용 중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748개의 도서관 중 257개관(17.5%),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65개관(8.7%)으로 나타났다.

〈표 2〉 CHI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현황

서비스	도서관 수	비율(%)
1개 이상	129	17.5
2개 이상	65	8.7
3개 이상	10	1.3

3.2.2 CHI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다음으로 CHI의 서비스 유형별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비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위에서 조사된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들만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현황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도서관편람에 등재된 748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도서관홈페이지에 CHI 관련 웹사이트를 등재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20개의 도서관에서 90개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건강 in'은 13개의 도서관에서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고, '건강샘'은 3개의 도서관, 16개의 사이트는 2개의 도서관,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는 각각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건강/의학 포털, 건강/의학 관련단체, 건강/의학관련 학협회, 병원 및 보건소 등 9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공공도서관은 대체로 어떤 사이트를 링크하는지 분석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은 병원 및 보건소 사이트를 가장 많이 링크하고, 다음으로 보건/의학 포털사이트, 건강/의학 관련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조사 결과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중복 구축되어 있거나 체

<표 3> 도서관에 링크된 CHI관련 웹사이트

구분	웹사이트명	사이트 수	비율(%)
건강/의학 포털	건강in, 건강샘, 케어캠프, 닥터, 닥터포유, 닥터크레지오, 닥터우먼, 압닥터, 당119 닷컴, 대다모, 의료샘, medcity-com 상담실, 전문의료정보, 메디넷, 양산메디칼폴리스, DR/BIT, 하이닥, 엠디하우스, HealthOK, MedTV21, 건강한세상, 신체활동길라잡이	22	24.44
건강/의학 관련단체	학생건강정보센터, 인터넷가상암센터, 혈액은행, 삼성의학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동대문구정신보건센터, 숙명여대의학정보연구소, 대한적십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국가지정의약품연구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4	15.56
건강/의학관련 학협회	에이즈예방협회, 대한안과학회, 건강관리협회, 남해군보건소	4	4.44
병원 및 보건소	삼성의료원, 당진군보건소, 울진군의료원, 통증클리닉, 서울대학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광천보건소, 영암보건소, 장흥군보건소, 김천시보건소, 부산대학교병원, 중랑구보건소, 녹색병원, 김준희치과의원, 연세이름다운피부과, 모아한의원, 서울이비인후과의원, 강남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꽃마을한방병원,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대구광역시강북보건소, 인천동구보건소, 광주시보건소	25	27.78
건강/보건관련 자료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문헌정보실, 폐암자료실, 의약품정보디지털학습관	3	3.33
건강음식 정보	완주건강한밥상꾸미기, 아이푸드, 짱이와영양친구, ilovemilk	4	4.44
다이어트 정보	사랑의 클리닉, 성인건강운동의방법, 수다이어트, 굿다이어트, E-diet-http, 댄스 & 다이어트, Cdiet, 엔젤다이어트	8	8.89
건강/의학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드름동우회, AIDS/HIV, 청년의사, 한국신경과학소식, 유방암동아리, 인터넷중독치료, DNSP(치매), 생활속도마일응급처치, 경기도생활체육회	10	11.11
총		90	100.00

계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HI 관련 웹사이트 정보원과 그 평가기준이 개발됨으로써 공공도서관에 건강정보원 사이트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표 4〉는 도서관별 링크 수로서 청원도서관이 가장 많은 CHI 관련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CHI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62개의 도서관 중, 20건 이상의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2개 기관, 10개 이상 20건 미만의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1개 기관, 2건 이상 5건 미만의 웹사이트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건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39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2) CHI 관련 교육프로그램

CHI와 관련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26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요가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CH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91개의 도서관 중 31개의 도서관이 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건강강좌, 경락과 한방요법 등을 포함하여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표 5〉 참조).

(3) 홍보 및 마케팅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보 및 마케팅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포함한 Q&A 사이트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CHI 관련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은 총 6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CHI 관련 교육이나 관련자료 제공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방법은 홈페이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브로슈어로 제공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4〉 CHI관련 링크제공 현황

링크 수	도서관 명
20건 이상	청원도서관(29),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26)
10건 이상~20건 미만	아리랑정보도서관(15)
5건 이상~10건 미만	중랑구립정보도서관(7), 광진정보도서관(7), 안양시박달도서관(7)
2건 이상~5건 미만	안양시박달도서관(4), 화도진도서관(3), 양산웅상도서관(2), 영도도서관(2),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2), 구수산도서관(2),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2), 울산남구도산도서관(2), 성남시구미도서관(2)
1건의 웹사이트 제공도서관	완주군립도서관, 정독도서관, 서대문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아현분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도봉도서관, 강동도서관, 서울고덕평생학습관,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은천동작은도서관, 성현동작은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관악문화관도서관, 양천도서관,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남구도서관,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광명시중앙도서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충주시립도서관, 공주유구도서관,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천안성환도서관, 연기도서관, 당진군립중앙도서관, 당진도서관, 광천공공도서관, 담양공공도서관, 정보문화센터영암도서관, 정남진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진도공공도서관, 김천시립도서관, 경상북도립울진공공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장녕도서관, 남해도서관, 제주도서관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임.

〈표 5〉 CHI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도서관 수

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예시
건강관련 강좌형태 한방관련 교육	건강강좌(7), 웃음치료강좌(1), 웰빙대학(1), 고령화사회를 위한 신바람 건강지킴이(1) 등 경락과 한방요법(6), 기공술(2), 수지침(1) 등
스포츠 지도 교육	요가(31), 스포츠댄스(10), 수영교실(7), 체조(4), 발레(3), 탁구(2), 댄스(2), 홀라댄스(1), 수지침(1), 에어로빅(1), 태극권(1), 배드민턴(1), 재즈댄스(1), 태권(1), 요트(1), 야구(1), 골프(1), 줄넘기(1) 등
피부관리교육 등	발 건강관리(2), 피부관리(1)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임.

〈표 6〉 CHI관련 홍보 및 마케팅 현황

도서관 이름	홍보건수	공지내용
아산도서관	1	순천향대학교와 함께하는 성인병 예방·관리 행복한 노후설계
보령웅천도서관	1	겨울철 건강관리
정보문화센터(영암도서관)	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	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김해도서관	1	정신과의사가 말하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수련법
마산도서관	1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 및 예방법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서비스를 제안하고자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제공 현황을 선행연구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제공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연감 2010에 등재된 748개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전수조사·분석하였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CHI서비스 제공 비율이 2005년 홍기선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되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비록 그 조사대상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조사대상 25개 도서관 중 6개의 도서관(약 23%)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내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9개의 도서관(약 18%)만

이 CH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5년의 조사방법과 2011년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긴 하나 CHI서비스 부분에서의 서비스비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CHI 제공방법이 다양할 것인지를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현황, 이용자 대상 또는 직원대상 CHI 관련 교육 제공 여부, CHI 전담직원 유무, CHI 관련 유료 DB 또는 무료 DB 제공 여부, CHI 관련 웹사이트 링크 제공 비율, 아웃리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서비스 종류 및 형식, CHI 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비율, CHI 관련 ILL 서비스 제공 여부, CHI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여부, CHI관련 홍보 및 마케팅 여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HI 관련 웹사이트 제공, 이용자대상 교육,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등 세 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13개인(1.74%)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HI 담당사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서가 CHI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어떤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내 사서들에게 계속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과정에서도 CH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나 ILL 서비스, 의료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CHI 서비스가 활성화된 도서관에서 행해질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조사결과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CHI 관련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조사결과, 국내의 경우 CHI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진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한 CHI 교육은 서비스제공자의 마인드 및 지식수준과 관련되므로,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CHI관련 정보원의 구축을 통한 건강정보원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ealth InforNet', CHIN, CRD 등은 건강관련 정보원을 웹사이트 상에 구축하고 해당 정보원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나다 키치너공공도서관(Kitchener Public Library)의 'HealthLink'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건강정보원을 링크시키고 있다. 오타와공공도서관(Ottawa Public Library)은 CHI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역시 'InfoGuides'라는 사이트맵을 통해 건강정보원의 사이트를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건강정보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망을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공공도서관에 링크된 관련 사이트 조차도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자원에 대한 확보와 이에 대한 평가기준의 적용 및 선별, 그리로 건강정보원 DB를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 CH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의료관련단체, 건강의료관련자료실, 병원 및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인력 및 자료, 지식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현황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이 관련사이트에서 CHI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데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CLIC-on-Health'는 수많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77개의 공공도서관과도 협력하여 건강정보서비스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OAH와 CHIN 등도 공동으로 정보자원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아웃리치서비스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서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황조사 결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HIN은 소비자건강관련 참고질의에 답변하는 사서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Crandall/Langeloth Program은 사서에게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정보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기술, 건강관련 핵심장서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CLIC-on-Health 프로젝트는 공공도서관 사서, 의료기관 직원, 학교도서관 사서, 노인회관의 직원 및 고령자에게 건강정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웃리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웃리치서비스는 지리적 한계, 재정적 한계, 언어적 한계 때문에 건강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관련 의료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CHI를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릴로정보센터는 아웃리치서비스로 건강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용자에게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관련 특강을 녹화하여 지역방송에 방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다양한 층의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내에 CHI 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미국에는 많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부족으로 어렵다면, 건강정보전문사서를 배치하는 것도 차차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CHI에 대한 관심 증가로 CHI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획득방법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CHI 획득경로 중의 하나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였고(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7), 공공도서관에서의 CHI에 대한 참고서비스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Marshall, Sowards, & Dilworth 1991).

공공도서관이 CHI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점은, 공공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하고 있고, 여기에 CHI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도서관 사서가 CHI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CHI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에서의 CHI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따라서 이론 및 사례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CHI 서비스 항목에 대한 홈페이지 조사결과는 이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조사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정보원을 구축할 것이며, 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공공도서관 CHI 서비스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노영희, 오상희. 2011.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공공도서관 CHI 서비스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47-77.
- [2] 송태민. 2006. 국내 건강정보웹사이트 현황분석. 『보건복지포럼』, 2006(3): 61-67.
- [3] 이란주. 2001a. 공공도서관 의학정보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229-248.
- [4] 이란주. 2001b. 공공도서관 의학서비스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63-86.
- [5] 조경원. 2006. 국내 성인의 인터넷 이용행태 및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정보 획득현황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2): 721-724.
- [6] 홍기선. 2005.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63-281.
- [7] Akin, L. & O'Toole, E. 2000. "The order of the public library and the disorder of attention deficit."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69-80.
- [8] Allcock, J. C. 2000. "Helping public library patrons find medical information - The reference interview."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21-27.
- [9] Anglin, C. 2008. "Reach out and rea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partnership, and outreach." *MLA News*, May 17. [online]. [cited 2010.12.20].
<http://www.mlanet.org/members/mla_news/2008/may_08/consumer.html>.
- [10] Bain, C. A, ed. 1984. *Health Information from the Public Library: A Report of Two Pilot Projects*. Albany, NY: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the New York State Library Cultural Education Center.
- [11] Baker, Lynda M., & Manbeck, Virginia. 2001. *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Public Librarian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Inc.
- [12] Carter, N. J, & Wallace, R. L. 2007. "Collaborating with public libraries, public health departments, and rural hospitals to provid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1(4): 1-14.
- [13] Chobot, M. 2004. *The Challenge of Provi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14] Defoe, D. 1991. "InfoHealth: Community health service at Kingston Public Library." *Canadian Library Journal*, 48(5): 340-343.
- [15] Derring, Mary Jo, & Harris, John. 1996. "Consumer health information demand and delivery:

- Implications for librari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2): 209-216.
- [16] Gallagher, P., Markovich, K., & Neri, R. 2000. “NOAH (New York Online Access to Health): Accurate, timely, unbiased, bilingual.”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53-65.
- [17] Gillaspay, M. L. 2005. “Factors affecting the provis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The last five years.” *Library Trends*, 53(3): 480-495.
- [18] Gillaspay, M. L. 2000. “Starting 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in a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5-19.
- [19] Grimwood-Jones, D. 2004. “Getting health information into communities: Four different models for bringing health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Library + Information Update*, 3: 12.
- [20] Guisu, L. 2007. “The median age technique for assessing currency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monographic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5(1): 89-90.
- [21] Harris, R., Wathen, N., & Chan, D. 2005. “Public library responses to a consumer health inquiry in a public health crisis: The SARS experience in Ontario.”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5(2): 147-154.
- [22] Ipsos Canadian Inter@ctive Reid Report. 2007. [online]. [cited 2010.1.5].
<<http://www.ipsos-na.com/productstools/media-content-technology/consumer-trends-product/canadian-interactive-reid-report.aspx>>.
- [23] Kloda, Lorie A. 2008. “Health information literacy in Canadian medical curricula: An opportunity for librarians?”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8(3): 314-322.
- [24] Kurtz-Rossi, Sabrina & Duguay, Patricia. 2010. “Health information literacy outreach: Improving health literacy and access to reliable health information in rural Oxford County Maine.”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4(4): 325-340.
- [25] LaValley, Susan. 2009. “Delaware health source: Consumer health libraries and health literacy outreach.”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13(2): 180-186.
- [26] Luck, W. Bernard & Immroth, Barbara F. 2007. *Health Information for Youth: The Public Library and School Library Media Center Role Libraries Unlimited*. [online].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1011_02/pdf/book01_1115.pdf>.
- [27] Luedecke, Katie & Burchfield, Scarlett. 2004. “Planetree services partner with public libraries.” *MLA News*, May 16. [online]. [cited 2010.1.5].
<http://www.mlanet.org/members/mla_news/2004/may_04/consumer_health.html>.
- [28] Lyon, Becky J. 2001.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nd health information for the

- public." *Public Libraries*, March/April: 107-109.
- [29] Marshall, J. G, Sowards, C., & Dilworth, E. L. 1991.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Ontario Public Libraries." *Canadian Library Journal*, 48(1): 37-44.
- [30] Murray, S. 2008.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Canada and the U.S." *Journal of the Canadian Health Libraries Association* [online], 29(4): 141-143. <<http://pubs.nrc-cnrc.gc.ca/jchla/jchla29/c08-037.pdf>>.
- [31] Patrick, K. & Koss, S. 1995.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ite Paper*. draft. [S. l.]: Consumer Health Informatics Subgroup; Health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Workgroup; Committee on Applications and Technology; U.S.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 [32] Pernotto, D., et al. 2003. "Health e-links: A pilot program for delivering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ehi) to consumers in rural areas through a partnership with Louisiana public librarie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7(2): 13-22.
- [33] Perry, G. 2000. "HIV/AIDS in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A "common ground" approach to service delivery and focus on select resources." *Public Library Quarterly*, 18(3/4): 119-137.
- [34]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7. *How People Use the Internet, Libraries, and Government Agencies When They Need Help*. [online]. [cited 2010.12.29]. <http://www.pewinternet.org/pdfs/Pew_UL_LibrariesReport.pdf>.
- [35] Picerno, PV. 2005.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on and off the internet: What part can and do public libraries play?"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9(4): 11-25.
- [36] Pifalo, Victoria, Hollander, Sue M., & Henderson, Cynthia L. 1997. "The impact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provided by libraries: The Delaware experience."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5(1): 16-22.
- [37] Schell, Mary Beth & Kitendaugh, Paula. 1999. *Public Library Consumer Health Pilot Project Evaluation Report*. [Rockvill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online]. <http://nml.gov/evaluation/outreach/plpp_evaluation.pdf>.
- [38] Tarver, Talicia. 2010. "Genomics: A new challenge in consumer health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10(1): 23-32.
- [39] Weldon, S. 2005. "Collaboration and marketing ensure public and medical library viability." *Library Trends*, 53(3): 411-421.
- [40] Wood, F., et al. 2000. "Public library consumer health information pilot project: Results of a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evaluation."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8(4): 314-322.
- [41] Zeisel, W. 2005. *Community Health Connections: Emerging Models of Health Information*

-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New York: American for Libraries Council.
- [42] 국립중앙도서관. "e-사서연수." [online]. [cited 2011.2.1].
〈<http://www.nl.go.kr/education/index.php>〉.
- [43]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online]. [cited 2011.2.1].
〈http://www.gylife.go.kr/life/life01_02.php〉.
- [44] ASK ME. [online]. [cited 2011.2.5]. 〈<http://queenslibrary.org>〉.
- [45] CHIN. [online]. [cited 2011.2.6].
〈<http://www.cityofnewhaven.com/library/healthnetwork/>〉.
- [46] CLIC-on-Health. [online]. [cited 2011.2.7]. 〈<http://www.clickonhealth.org>〉.
- [47] Crandall/Langeloth Program. [online]. [cited 2011.2.7].
〈<http://www.crandalllibrary.org/medical/default.asp>〉.
- [48] CRD. [online]. [cited 2011.2.8]. 〈<http://www.crdli.org>〉.
- [49] Grillo Health Information Center. [online]. [cited 2011.2.7].
〈<http://www.boulder.lib.co.us/special/Grillo/index.html>〉.
- [50] Health e-Links. [online]. [cited 2011.2.9]. 〈<http://www.healthelinks.org>〉.
- [51] Health InfoNet of Alabama. [online]. [cited 2011.2.7]. 〈<http://healthinfonet.org>〉.
- [52] NOAH. [online]. [cited 2011.2.7]. 〈<http://www.noah-health.org/en/search/health.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oh, Young-Hee, & Oh, Sang-Hee. 2011. "A critical analysis of literature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47-77.
- [2] Song, Tae-Min. 2006. "Health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3): 61-67.
- [3] Lee, Lan-Ju. 2001a.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medical information site for public library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1): 229-248.
- [4] Lee, Lan-Ju. 2001b.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in a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3): 63-86.
- [5] Cho, Kyung-Won. 2006. "An investigation of internet usage an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 by internet of domestic adul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06 Chungye Jonghab Haksul Daehoe Nonmunjib*, 4(2): 721-724.
- [6] Hong, Ki-Sun. 2005. “A study for activ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263-281.
- [4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Saseo Yeonsu.” [online]. [cited 2011.2.1].
〈<http://www.nl.go.kr/education/index.php>〉.
- [43] Jeollanamdo Gwangyang Lifelong Education Center. [online]. [cited 2011.2.1].